

<2부. 바벨론에서 생활하기>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획득한 영원한 삶의 직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내세의 특권에 참여하는 사람들(롬3:24;8:17;골3:1;빌3:20;히4:14;빌3:21;계21:1-2;살전1:10)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영원을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흠어져 살아가는(디아스포라) 나그네”과 “거류민”으로 정의한다.

땅을 약속받았으나 아직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거류민”이자 “나그네”로서 살았던 구약의 족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이방의 땅”(히 11:9;11:8-10)에서 살고 있다.

1. 구약시대

인간의 타락 직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 사이의 긴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인간 문화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그것들과 신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신자와 불신자 상호간에 근본적인 영적 대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문화적 공통성을 유지하며 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두 언약 위에 두 나라를 건설하셨다는 전제를 토대로 관찰하려고 한다.

1) 영적 대립과 문화적 공통성

	창세기 3장 14~19절	창세기 4장
영적 대립	타락 이후 여자와 뱀이 서로 대적하여 다른 것을 믿고 다른 주인을 섬기며 다른 운명을 향하게 된다.	가인과 아벨(여자의 후손)의 제사를 차별하시는 하나님(창4:4).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뱀의 후손이 하나님의 참 신자를 죽임. 아벨을 죽인 가인을 심판하시고 내쫓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심.
문화적 공통성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고, 모든 남자는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감내하며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맞이한다.	쫓겨나는 가인의 안전을 보장하심(불신자 사회에 정의와 질서를 부여) 가인의 후손이 농경, 음악, 야금술 등 문화의 중요한 업적을 성취 → 위대하지만 거대한 악과 결합된 성취(23~24절)의 양면성.

2)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과 일반 나라의 수립

문화적 발달과 별개로 역사가 악한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시고 그 중 경건한 사람 노아(6:8)와 그 가족 그리고 암수 짝승 한 쌍씩을 제외하고 홍수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심판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창8:20-9:17) 이 언약은 이른바 ‘일반 나라’가 정식으로 설립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일반 나라의 성격	내용	특이사항
보통의 문화 활동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9:1,7 -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본래의 문화 명령을 반영) 명령하시고 식물과 고기를 주시며(3-4절) 악행에 대한 처벌을 명하시는 형태가	
공통 인류를 포용	차별 없이 “너희 및 너희 후손”과 “널리 대대로”(창9:9,12)그리고 “모든 생물”(9:10,12,15,16)과 땅 자체(13절)도 포함,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심.	

자연과 사회의 질서 부여	계절과 밤낮 그리고 그에 따라 주어지는 노동과 수확(창8:22). 야생으로부터의 보호(1,7절), 생육과 번성(1,7절), 적절하게 시행되는 사법 정의(6절)	노아 언약은 구원이나 죄 용서가 아닌 이 세상의 보존을 의미할 뿐이다.
한시적	다시 홍수로 심판받지 않고(9:11,15) 오래 지속되었지만 영원한 나라와 달리 한시적인 목적들을 위해 지어졌으므로 반드시 종결될 것이다(창8:22).	

3)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구속의 나라의 수립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섬기는 이들은 홍수 이후에도(또한 오늘날까지) 여전히 영적으로 대립하여 정당한 문명의 수행 대신 바벨탑 사건 등을 통해 하나님께 대항한다.

11장 말미에서 등장하는 아브람(아브라함)은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15,17장) 구속의 나라의 시작을 장식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앞서 언급한 노아 언약과 전혀 상반된 특징을 가진다.

구속 나라의 성격	내 용	특이사항
믿음과 예배	자손의 창대함을 약속하시고(창15:5)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심(6절). 언약 갱신 때 거룩한 예식인 할례로서 그 언약에 충실할 것을 모든 남성에게 명하심(창17:9-14).	
구분되고 거룩한 백성을 포용	인류의 통합이 아닌 ‘아브라함과 그 후손(창17:7)’이라는 한 부분을 나머지 인류로부터 분리하여 놀라운 언약에 참여하게 하심(12:2,15:5,17:4-6)	
구원으로 인한 유익을 제공	장차 올 세상의 문을 여는 일, 믿음에 기초한 칭의로써 아브라함의 죄를 간과하시고 타인 즉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돌리시사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베푸시는 일(롬4:1-8,5:17-19).	
항구적으로 지속	약속하신 영생이 시사하는 바대로 이는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며(계21:23-24) 이를 기반으로 신자들은 그곳에서 함께 다스릴 ‘나라와 왕들’이다(창17:6;히2:5-9).	

물론 아브라함 역시 두 나라의 생활 양식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한다.

- 노아 언약 아래 살았으므로 일반 나라에도 참여했고
-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아 구속의 나라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이 온 땅을 얻으리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여러 곳을 전전하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창12:10,15:13,20:1,21:34,23:4;히11:13).

삿딤 골짜기에서 군사 분쟁에 참여했고(창14장) 아내 사라의 장치를 매입하기 위해 헷 족속과 토지 거래를 하였으며(창23장) 자신의 아내 사라를 부인한 일에 대하여 그랄왕 아비멜렉과 진지하게 윤리적인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창20장). 아비멜렉과 더불어 토지 소유권에 관한 논쟁을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언약을 맺는다(창21:25-30).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아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불신자들과 함께 문화 활동을 하는 동시에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함으로 구속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웃들과 철저히 구별되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4) 두 나라와 모세 언약

번성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성경은 이 언약을 기준으로 오랜 세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들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

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세에 의해 출애굽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구속의 나라를 현시한다.

- 이스라엘의 왕은 구속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예시하는 위치에 있고,
-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제사장과 성전도 친히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시하는 역할을 한다.
- 젖과 꿀이 흐르는 특별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예표한다.
-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후대의 백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가리키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갈3:19-24).

아브라함이나 다른 족장들의 경우와 달리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은 노아 언약 아래 성도가 살아가는 두 나라에 속한 삶을 예시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의 거류민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그 땅을 소유
이웃과의 활발한 교류	이방 민족과 공통된 문화생활 금지(신7:2)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명하셨음.	시내산 언약으로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일일이 정하여 일상을 규제.
약속의 땅 경계 밖에서 두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삶	약속의 땅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삶

화평을 통한 조공과 전쟁 포로 혹은 전리품

5) 바벨론에서의 타향살이

아브라함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요구받았던 이스라엘은 땅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계 밖으로 내몰려 바벨론에 포로로 살게 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추방의 저주(신28:64-68)를 받아 끌려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바벨론은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이었기에(시137편) 급변한 환경 속에서 영적인 정체성이 붕괴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곧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근거없는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머무는 이방인들의 땅에서 집을 짓고 경작을 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것을 권한다(렘29:6). 즉 낮은 이곳에서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문화 활동을 이어갈 것을 의무로 제시한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7절) 즉 포로로 끌려간 그 곳에서도 일상적인 문화생활을 지속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그 이방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다소 무리한 것처럼 보이는 명령을 내리신다.

모세의 율법은 모압과 암몬에 대해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지니라”(신23:8)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은 그 모든 것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 자칫 혼란을 야기할 것처럼 보인다.

바벨론에서의 문화적 공통성 유지	바벨론에서의 영적 구분 유지
- 분리된 상태를 불허하며 - 정치적 경제적 구분도 불가능.	- 구속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철저한 구별되어 - 근본적인 영적 대립을 유지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신자와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삶. -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땅에서 거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공유하되 종교적으로 충성(렘29:12-13). - '희망'과 '미래', 추방의 종결과 귀환의 근거. (10,14절;신30:1-3)
--	---

5장. 신약시대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을 "나그네" 혹은 "거류민"으로 부른다. 베드로의 주된 관심 중 하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다. 신약 시대 성도들 역시 구약의 바벨론 포로생활과 유사한 경험을 한다. 둘 사이에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구약 성도들은 모세 언약 아래 살았다. 신약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 본향에 대한 소망을 통해 구별된다. 많은 부분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함으로 영적 대립과 문화적 공통성은 여전히 지속된다. 그럼에도 구약과 신약시대 성도들의 경험은 큰 차이가 존재한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구원의 복을 누린다.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제사장, 제사 제도, 성전이 있었다. 우리는 원형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추억한다. 예수님은 첫째 아담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시고 아담에게 예정된 운명 곧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셨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셨고 증보자로 영원히 살아 계신다. 예수님은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성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올 세상을 멀리서 바라봤지만, 신약 성도들은 장차 올 세상의 삶에 가장 깊이 참여하며 영원의 바로 직전에 서 있다. 말세의 복 가운데 하나가 신자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구약의 예배 공동체는 한 가족(아브라함 시대)이나 한 민족국가(모세가 지도하던 시기와 바벨론으로 추방된 시기)에 국한되었다. 오직 한 지역에만 존재했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신약 시대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선교적 사명은 교회 정체성에 대단히 중요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성도들의 경험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견해보다 두 나라 교리에 중요한 것은 없다. 이번 장에서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유일한 단체 혹은 공동체라는 주장을 변호하려 한다.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설립은 아브라함 언약과 구속의 나라를 마지막 직전 단계까지 성취하신다.

노아언약을 기반으로 일반 나라가 존재하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구성된 공동체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 노아 언약이 지속될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지키신다. 모든 문화 활동은 모든 사람 사이에 계속되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웃들과 이것을 공유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 국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힘써야 한다. 한편으로 예배, 친교,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맡겨진 선교로서, 한편으로 문화 활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

이번 장에서 저자는 구속의 나라와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 설립에서 어떻게 마지막 직전단계까지 성취되었는지 검토하고, 그 다음 노아 언약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세상 참여를 살펴본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문화적 공통성 안에서 삶에 대한 원대한 소망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권장해야 할 태도를 고찰한다.

1. 구속의 나라와 교회

신약은 은혜 언약과 구속의 나라가 장차 올 세상에서 어떻게 마지막 직전 단계까지 성취되는지 서술한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

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계 21:3)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고 "땅의 왕들"인 복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21:2,24절).

최종 성취의 날이 오기까지, 은혜 언약과 구속 사역의 나라는 교회에서 마지막 직전 단계까지 성취된다. 예수님은 국가나 가족이나 학교나 벤처 기업을 설립하지 않으셨다. 이것들은 노아 언약 아래서 운용되고 보전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설립하셨다. 이 세상에서 구속의 나라와 은혜 언약은 오직 교회에서 표상되고 동일시 된다. 이런 고등한 교회관은 구속적 변혁주의 모델과 구별된다.

1) 교회에서 성취된 아브라함 언약

창 15장,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언약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특정 백성을 포용하며 그들에게 장차 올 세상에서 구원과 생명을 약속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서 근간을 이루는 아브라함 언약을 회고한다. 이스라엘의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늘 기억하셨다. 그들에게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의 원천이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 성취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은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에서 마지막 직전 단계까지 성취된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한 언약 공동체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얻는다. 갈 3장과 엠 2-3장은 이런 진리에 대한 조감도를 제공한다.

사도 바울은 갈 3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두 가지로 서신을 시작한다. 첫째, 바울은 자신의 수진자를 갈라디아 교회들이라 부른다. 둘째, 그는 축복의 인사를 계속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를 언급한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갈 1:4).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복으로 칭의를 통한 죄 용서, 장차 올 세상에서 시민권을 통해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론부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첫 단서를 제공한다.

갈라디아서 3장은 이 주제를 뚜렷이 발전시킨다. 바울은 신약의 교회가 더 이상 모세 언약 아래 있지 않는 이유 뿐 아니라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한다고 단언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갈 3:7, 9,14).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속하므로, 아브라함 언약에 관여한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믿음의 사람이 세례를 통해 구별된 사람이며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 세상의 어떤 단체나 기관도 세례라는 표지를 기준으로 정체성을 확인받지 않으며, 따라서 그런 단체나 기관 중에서 이런 약속을 가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엠 2:11-3:13 절에서도 구약의 언약과 신약 시대의 교회 간의 존재하는 이런 연관성을 설명한다. 이방인은 한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엠 2:12)"이었다. 엠 2장의 이방인은 아브라함 언약과 약속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약의 약속 언약에 똑같이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런 약속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엠 2:19-21)때문이다. 엠 3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동일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4-6절), 이 비밀은 교회로 말미암아……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 드러난다(10, 또한 9-10절).

구약에 기록된 언약의 복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향유된다. 이 땅에서 다른 어떤 단체도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결코 주장할 수 없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

해 졌다. (엡 5:25-27). 교회가 누리는 특권이 참으로 위대하고 특별하지 않는가!

교회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주어진 약속에 대한 소유권을 현재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관 혹은 공동체이다. 교회는 아브라함 언약이 훨씬 웅대하게 계속되는 곳인데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밝혀지지 아니하셨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 안에서 밝혀지기 때문이다(엡 3:4-5).

2) 천국의 도래

아브라함의 언약이 현재에 교회 안에서 분명히 표명되고 성취된다면, 구속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구속의 나라는 처음에는 규모가 작아서 단지 한 가족으로만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과 시내산에서 또 하나의 언약을 맺으셨다. 다윗 언약을 통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는 공동체로 말씀하셨다. (마 16:18-19). 따라서 현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신약 시대의 교회이다.

구속의 나라는 천국이다. 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마태는 천국이란 용어를 통해 이 나라가 장차 올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들어왔음을 신호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한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닌 것을 하신다. 마태복음의 앞부분에서 천국과 관련해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 나라가 새로운 무엇이 라는 점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나라는 구약에 예언되고 기대되었지만, 결코 전에 보지 못한 세계와 같은 무언가가 이 세상으로 들어온다. 세례요한은 말라기의 엘리야로서 그가 잡혔을 때 구약 시대는 막을 내렸다.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실 것이라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지목하였고 예수님은 새로운 자기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이방의 갈릴리"(마 4:15)에서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일을 시작하셨다. 천국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속한다. 모세의 시대인 구약 시대는 이제 종결되고 있다.

산상설교는 새로운 천국이 구약 시대에 속한 구속의 나라를 어떻게 능가하며 그 나라를 어떻게 성취로 이끄는지 훌륭하게 보여준다.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분으로 모세처럼 가르치실 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어 그것을 들은 자들은 놀랐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드러낸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우러 오셨다.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는 구약 시대 구속의 나라와 율법을 성취로 이끈다. 천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옛 시대에 속한 구속의 나라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옛 시대에 속한 구속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목적들이 이미 성취된,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일부로 무대를 떠난다. 모세의 율법은 후견인으로 한시적으로 실행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후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은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다.

마 5장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되풀이 하지도 폐하지도 않으심을 분명히 보여 준다. 천국도 모세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윤리적 청결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이러 윤리적 정결이 얼마나 와년해야 하는지를 강조하셨을 뿐이다. 살인과 간음에 대한 금령은 심지어 분노와 음욕으로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마 5장에 주어진 마지막 네 가지 메시지는 예수님이 단순히 구약의 율법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말씀하심을 보여준다. 모세의 이혼 증서, 맹세, 원수를 미워하라는 규례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대조적으로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단지 구약의 율법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뤄지는 삶은 새로운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모세 통솔 아래 구속의 나라에서 삶과도 다르다. 이 사실은 갈등과 정의 문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모세 언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엄격한 형태의 정의를 규정한다. 결혼 생활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모세 언약을 이혼 방법을 제공했다. 증인은 맹세를 통해 진실을 말하도록 했고, 대적이 약속의 땅을 침범할 때 죽이라 명령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만 행악자들에게 정의를 시행하는 방식과 모순되지 않게 했다. 그러나 천국에서 사정이 다르다. 이 나라에서는 결혼 생활 갈등은 이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맹세한 증인을 참석시키는 소송 사건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보복과 증오

대신 용서, 화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천국은 정의에 대해 기이하게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취하는 것일까? 산상설교는 윤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한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이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장하신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예수님은 시험받으실 때 성실하셨는데 지금은 첫째 아담이 얻었어야 했던 정당한 통치권을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천국은 장차 올 세상에 속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첫째 아담이 순종했다라면 얻었을 나라다. 천국은 성취된 구속의 나라이다.

산상설교에서 주어진 명령은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 제자들만 가르치셨고 그들을 위해 그 나라를 단번에 얻으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의를 요구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총족된 정의의 실재를 누리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시민이며 따라서 애초에 첫째 아담을 위해 의도된 나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정의는 제자들을 고소하는 주장을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악을 행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정한 정의를 요구할 특권이 아니라 복음을 설교할 특권을 갖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시민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행악자들에게 보복하시는 대신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허락함으로써 우리의 두 번째 악행을 감내하셨다. 천국의 시민이 행악자에게 복수대신 두 번째 악행을 감내할 때, 복음을 현시하는 증인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율법과 정의에 대한 요구가 성취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천국은 구속의 나라가 만개하는 놀라운 실재다.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 되시며 자기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신다. 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증명해야 할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으며, 아직 성취하지 못한 정의도 결코 없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 나타난 화해와 용서의 윤리를 추구하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맞서 처벌을 요구하기를 포기한다. 산상설교에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없음을 뜻한다.

3) 교회와 천국

그리스도인은 이런 새로운 생활 양식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실행해야 할까? 저자는 다양한 성경적 증거를 적용하기 위해 두 가지 기본 개념을 제공한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 말씀이 이 세상에서 실행되도록 뜻하셨다. 둘째, 예수님은 자기 말씀이 교회 공동체 윤리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명령을 실행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주님은 경고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언제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는 죄와 투쟁으로 가득한 세상 한 가운데서 실행되도록 의도된 천국 윤리다.

그러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할까? 우리는 산상 설교가 무엇인지를 상기해야 한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윤리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공동체 생활양식이다. 이 윤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마태는 교회를 지목한다.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이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이 땅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예수님은 마 18장에서 교회의 윤리가 산상 설교에 천국의 윤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신다. 마 18:15-18절에 기록된 말씀은 마 16장에 기록된 것과 같은데 천국과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교회는 천국의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인데,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죄를 지으면 교회는 산상설교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엄정한 정의를 요구하는 대신, 그리스도인은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형제를 교회의 친교로 회복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는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한다면, 그로 인해 일단락된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 공정한 판결에 도달하는 일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더라도, 교회는 복수의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이상 교

회 회원의 아닌 대상으로 평화적으로 대한다. 실제로 마태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처신할 때 예수님처럼 행동함을 강조한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천국으로서, 유리하는 양들을 찾고 아낌없이 용서하는 일에 우리의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 마태는 천국이 더 넓은 세상의 사회 단체나 정치 기구에서 발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하시지만 그가 난폭한 직업 군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국가 조세권과 칼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 말씀하신다. 복음서는 이외에도 천국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천국은 씨뿌리는 사람, 물고기 그물, 탕자같다. 사역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고, 지상에서 탕자처럼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 구성된 공동체이다. 교회는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이다. 비록 교회가 은혜 언약이나 천국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은혜 언약과 천국이 경험되는 곳은 바로 교회다.

4) 교회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은 교회를 신자와 신자의 자녀들로 구성된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가리키기 위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 공동체는 특별히 예배로 하나가 되며, 가르치고 다스리고 섬기는 사명을 위해 임명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 다스림과 섬김을 받는다. 교회는 가시적이다. 눈에 보이는 성례적 표징인 세례를 통해 구별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섬기는 공동체이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화목을 실제로 경험하는 곳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회원 간의 깊은 친교와 상호 섬김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집"으로서 감독과 질서가 있으며, "천국"으로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고 권징 절차를 시행한다. 이 땅에서 언약의 약속과 천국의 복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공동체는 눈에 보이고 충성된 교회이다.

2. 예수님이 강림하신 이후의 일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많은 제도와 단체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렇지만 은혜 언약과 구속의 나라에 속한 특권과 복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교회에만 있다. 그렇다면 현재에 예수님은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해 이 세상의 제도와 단체를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 제도와 단체는 일반 나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일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며 이 세상의 지속적인 문화생활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지만 수명은 짧다. 이 세상이 그 정해진 결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초림은 노아 언약이 아니라 모세 언약의 종결시켰다.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 언약을 성취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노아 언약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종결된다.

1) 일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제도와 단체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연 질서와 인간 사회 질서의 보존을 약속하신다. 사회 질서와 관련된 두 가지 제도는 가족과 국가이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시는데 일반 나라에서 가족 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정당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데 이는 정치, 사법 제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예수님은 가족 제도를 세우지 않으셨다. 창조와 노아 언약 때부터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신약은 가족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정 안에서 권위의 구조를 인정하며 예수님과 교회가 구원의 복을 수여하는 일에 가정을 어떤 식으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성경은 독신을 인정하지만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특정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선한 일임을 시사한다. 가정 안에서 상호의무, 권위 구조, 사랑의 의무가 존재한다.

교회와 달리 가족은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혼인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신앙유무와 무관하다. 가족제도가 일반 나라의 일부라는 것은 가정이 한시적으로만 존재하다는 사실을 통해 강화된다. 장차 올 세상에서는 혼인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가족 관계안에서 특별한 책임과 권리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과만 혼인해야 한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아브라함 언약은 여전히 신자들에게 적용되고 신자의 자녀들은 교회의 회원과 천국의 상속자로 간주된다. 예수를 믿는 부부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친밀하고 복된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특권을 갖는다. 비록 일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교회 안에서 크게 존중받는다.

신약 성경은 국가와 관련해 어떻게 말할까? 신약 성경은 국가 역시 예수님이 세우셨다 말하지 않는다. 국가는 노아 언약에서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 사회 안에 존재하도록 규례로 정했기 때문이다. 신약은 시민 정부의 권위와 정권을 행사하는 위정자를 인정한다. 국가와 국가의 위정자도 위정자와 시민의 신앙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사회 질서나 정치 질서를 구속의 나라인 천국에 적합하도록 만들 책임이 국가 권력자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국가로 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고요하고 평안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의를 시행하는 것뿐이다. 롬 13:4절에서 바울은 국가를 일반 나라가 아닌 구속의 나라에 연관시키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한다. 국가는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 "불의한 자"를 향해 "칼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비록 신약 성경이 일반 나라의 제도로서 가족과 국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가족과 정치 생활은 그리스도인 관여해야 하는 유일한 문화 활동은 아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금융거래, 기독교 사업망 구축, 기업 경영, 일상적인 일은 일반 나라에 속한 활동이다. 일상 직업이나 정치 생활 같은 문제에 대해 고전 5장에서 바울은 교회가 구별되고 거룩해지기를 바라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상은 노아 언약 아래서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공동으로 노동이나 정치 등의 활동에 관여하기를 기대한다.

2) 일반 나라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일반 나라에 관여해야 함을 시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문화적 수행을 형성해야 할 기본적 관점을 가르친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쁘고 만족스럽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은 음식물, 배우자, 유급 일자리, 그리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계속 제공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부분들로서 참으로 선한 것이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문화활동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다. 그러나 문화 활동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점은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결코 아니다. 많은 현대 서적과 대조적으로 신약 성경은 훨씬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신약 성경의 관점이 3가지로 유용하게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웃에 대한 승리와 정복의 정신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문화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전술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 그런 사람을 죄인으로 비난하기가 정말 쉽다. 우리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비방과 정복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이다. 우리는 이삭이 블레셋에 거류민으로 있을 동안 겪은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떠나도록 요청한 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보다 강성했기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두고 이삭과 다투었다. 이삭은 거처를 옮겨 우물을 팠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 언약을 맺자고 요청했다. 이삭은 승낙했다. 그는

대적을 정복하거나 자기 권리를 강요하는 태도가 아니라, 되도록 모두와 평화롭게 사는 태도를 보였다. 둘째. 신약 성경은 인간 문화에 비판적으로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문화적 공통성이 영적 대립을 제거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동안에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가 인간 문화를 부패시키는 많은 방식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유의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군사 무기나 정치 전술이나 언론 광고와 같은 육신에 속한 무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신자와 문화 사명에 관여하고 겸손과 온유로 불신자를 섬기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비판적 사고와 불복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다.

셋째. 신약 성경은 장차 올 세상에 나타날 우리의 참된 본향을 동경하고 이 세상과 깊은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롬 8:18)과 비교할 때 우리가 수행하는 문화 사역은 잠깐 동안 성공과 실패, 기쁨과 실망을 동반하는, 기껏해야 순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심지어 결혼이나 상업처럼 인간 문화에서 고귀한 활동도 영원과의 관계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현세의 성공과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대신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아야" 한다(히 13:13-14). 이 세상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과 장차 올 세계에 대한 동경은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각인시키는 자세다. 그것은 거류민과 나그네에 적합한 자세다. 다니엘은 주변의 이방 이웃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들을 성실히 섬겼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바벨론의 관습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으며, 무엇보다 70년간의 추방시기가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다. 말세에 경건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베드로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일반 나라와 구속의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과 윤리적 통치 아래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두 나라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신다. 그 두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한 나라 만이 지속될 운명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일반 나라에서 거류민과 그분의 구속 나라가 총명한 영광 가운데 도래함을 알리실 때를 기다린다.

<3부 두 나라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6장. 교회

외견상의 모습과는 달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고 믿음으로 그 분과 연합된 단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의 약속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 땅에서 스스로를 구속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

1.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중요성

교회는 지친 삶에 에너지를 채우는 재충전을 위한 주유소 같은 곳인가? 작전 시간을 통해 재정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하프타임 같은 곳인가? 교회에 가는 것을 인간 중심적 사고로 바라볼 때 생기는 오해. 교회에서의 예배와 친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요 중요성에 있어서 다른 활동을 잘 하기 위해 돕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관계를 맺는 문화를 언급할 때 교회는 반드시 으뜸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속의 나라로서의 교회 :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만(골 3:1-4)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빌3:20-21)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장차 올 세

상에서의 삶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와의 친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과 동일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교회라는 몸의 지체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2) 예배 :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하게 될 활동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상당히 미지수이지만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곳이 예배로 충만한 곳일 것이라는 사실이다(계15:1-4,22:3).

예배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요구하신다는 명제를 강력하게 인정하면서도 그만큼이나 특정한 활동으로서의 '예배'를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말씀의 봉독과 선포와 시행, 기도와 찬송으로 그것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의 예배는 필수적이며 이는 오직 구속의 나라에서만 한정된다.¹⁾ 성경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공동 예배로서(고전11:33-34,14:26-40) 부지런히 모이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예배할 것을 명령한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족한 이유는 하늘에 속한 예배가 공동의 활동이고 교회는 그 예배의 전조를 맛보고 이를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3) 주님의 날 : 주중의 다른 날과 구분하여 일상적 문화 활동을 멈추고 안식하게 하신 날을 전통적으로 지켜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회의 중심성을 강조했다. 공동 예배를 준수하면서도 나머지 시간을 일이나 쇼핑, 운동 등으로 보내는 습관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점차 고도의 발달을 거듭하는 사회에서조차 주님의 날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훨씬 중요하고 참된 소망과 확신의 원천이 되는 또 다른 나라의 국민이므로 설사 출세에 지장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교회 중심성을 대항문화적으로 교회의 대내외적으로 고백하고 시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순종적으로 일상적 사회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모방할 기본적 의무를 가진 자들을 상기하는 것이다.

2. 교회가 지닌 독특한 윤리

1) 정의를 능가하는 용서

정의를 추구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세속의 권력을 세우셨지만(롬13:1-7)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요약되는 일반적인 정의의 원칙은 천국에서 적용되지 않고 그 자리를 용서와 화해의 윤리가 대체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한 이들을 대상으로 권징을 시행하는데(마18:15-20;고전5장) 그것은 처벌의 시행보다는 회복을 목표로 한다(마18:15;고전5:5;고후2:7-10;갈6:1). 세속 법정과 달리 교회의 권징은 회개의 의지를 확인하는 즉시 중지되고 죄를 탕감하시는 은혜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긴다. 간혹 교회의 용서는 받았으나 세속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나 장로들의 직분 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의 공정하고 종신적인 판결과 달리 교회는 아름다운 용서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2) 희소성을 뛰어넘는 관대함

일반나라는 한정적인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원리를 세우고 그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 선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제약을 뛰어넘는다. 교회가 예측된 헌금으로 예산을 세우고 계좌의 잔고를 초월하여 선교나 구제금을 지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교회가 경제학에 재정 원칙을 의존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렘돈을 드린 과부가 부자들의 어떤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고(막12:41-44)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가 되고 타인들의 결핍을 채

1) 창세기 9장의 노아언약은 예배에 관한 명령이 없으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는 할례와 단을 찢는 일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을 두었다(창12:7-8,17:9-14). 바벨론 포로기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교적 예식을 거부하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신약에서도 예수를 통해 의롭다하심을 얻어 하나님을 아با아버지로 부르는 이들이 참된 예배에 임할 수 있다.

우는 넉넉함으로 승화된다. 일반 나라가 어리석게 여기는 '힘에 지나도록 주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 관리라고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다는 칭찬으로 대신한다. 이는 단지 재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외견상 무책임해 보이는 관대함이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부유함을 제공한다(고후9:8-14).

3) 폭력을 일축하는 복음 전파

교회는 천국 열쇠를 맡은 존재론적 선교 조직으로서 선인과 악인 모두를 향해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할 의무를 가졌다(마22:9-10).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행1:8) 자신의 증인이 되도록 사명을 맡기셨다. 이 사역은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에 귀속시키고자 마치 오늘날의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무기'(고후10:4)를 내려놓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딤후4:13), '심혈을 기울여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딤후4:5)을 통해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불러들이고 예수님의 나라를 제외한 다른 것에 충성하면서 살아온 삶을 그만두도록 권유하되 '전도의 미련한 것'(고전1:21; 롬10:14-17)으로 사람을 믿음과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

3. 교회의 영성

교회의 영성을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에 반대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는 가시적 공동체로서 예배에 관여하고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떡을 떼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각종 제도와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결국 몸의 부활과 새 하늘 새 땅을 고대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영성은 일반 나라에 속한 어떤 단체를 기준으로 정의할 수 없는 전혀 구분된 공동체라는 사실에 있다.

노아 언약을 통해 일반 국가와 가족, 학교, 기업 등의 사회의 체계를 세우신 과정에서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설립의 형태와 달리 교회는 초자연적인 신적 행동에 의해 설립되었다(마16:17-18). 이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시각적으로 예표하는 실재로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성취되면서 개연성 있는 과정을 건너 뛴 것처럼 보이도록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일반 국가와 제도를 존중하는 반면 그들 중 어떤 것과도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견지하며 선을 그어야 한다.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그것이 무의미함을 강조한다(고전7:20~28; 골3:11).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는 유일하게 그를 규정하는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혹시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나 가르침이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을 우선시하여 특정 신자들을 교회 생활과 예배 참여에서 배제하지 않는가 살펴야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반 나라의 다른 제도나 기관의 역할을 부정하고 교회 이외의 다른 단체를 도외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영성은 스스로의 독특한 지점을 발견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하신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지고 보존된다.

4. 교회가 갖는 목회적 권위

교회가 가진 목회적 권위는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믿음을 위한 교리나 삶을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섬기는 권위를 의미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찾는 태도를 지켜나가는 것인데 이는 일면 일꾼들을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교회의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고 행동해야 하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모든 영

역에 대해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도록 열려있음을 발견한다.(종교개혁 시대 금요일에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개혁교회와 로마 카톨릭 사이의 이견)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윤리적으로 가치중립적이거나 윤리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라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그럴 경우 윤리의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대해 목회자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기계적인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책무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노아 언약으로 만들어진 일반 국가와 체제는 훗날 성경에 명시된 부모 자식의 관계, 위정자와 국민의 관계 등을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지켜져 왔는데 이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집단 안에서의 자연적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면 교회의 규범은 그와 달리 자연적 필요를 통해 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설립된 교회는 예수님이 정하신 바 당신의 말씀과 사도를 통해 영감된 말씀을 근거로 권위의 체계를 확립하고 그 한계를 설정한다.

때로는 교회가 성경이 명시하지 않은 규칙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직원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의를 가지되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신자들이 양심으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이다.

이 원리를 통해 두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예배가 신약에서 규정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가 거행하는 예배를 규정한다(예배의 규정적 원리). 성경이 정하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 성도는 교훈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 교회의 직원이나 권위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에 '아멘'하도록 성도에게 강요할 수 없으므로 예능적인 요소와 기타 다양한 필요에 의해 삽입되는 순서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 둘째로는 교회가 수행하는 집사 사역, 구제 사역이 반드시 성경에서 명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성경은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선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한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전 16:1; 고후 9:1). 그리고 그들은 명부에 기록이 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딤후 5:3-16). 그러나 이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우선순위와 분명한 목적의식에 관한 언급일 뿐 불신자들에게 인색하라고 가르치는 원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갈 6:10).

7장. 교육, 직업, 정치

1. 그리스도인이 수행하는 문화 활동 : 기쁨과 거리감과 겸손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통해 이루신 일의 결과에 의지할 뿐 우리가 수행하는 문화 활동으로 새 창조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행할 문화적 책무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의 목적이 창세기 1장 26-28절의 문화명령 그 자체를 이어받고자 함이 아닌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체결하신 수정된 문화명령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에 주어진 문화 활동이 새 창조를 이루는 방편이 아닌, 세상 끝날까지 생명을 보전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지향함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문화적 과업을 수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당한 사회 제도들을 지지하며 근본적인 종교적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불신자들과 협력해야 할 경우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문화활동 그 자체가 때로 고되고 따분하고 실망스러울 때에도 일하는 자는 먹고 마시며 보람을 찾고 가정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격려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고 귀한 활동들을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훌륭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그 기쁨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도 상기하게 된다. 일반 국가 안에서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 하면서 얻은 것을 누리는 삶은 일시적이고 단순한 문화적 성취로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과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경이로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가운데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극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

지는, 물론 그저 지나가는 것(고전7:3)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행실에 대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생각하면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다. 70년을 머물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 귀향을 예상하는 중에도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은 일상을 지속했듯 우리에게도 영속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다만

2. 교육

인간 지성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는 주된 특징이자 하나님의 형상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학습이란 순전히 인간적인 노력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사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이기도 하다. 신자 역시 창조주를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골3:10)로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골2:8)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다 복종시켜야 한다(고후10:5)고 가르친다.

1)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전통적 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은 전인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입장에서 보면 개별적 사실이나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중요한 통일성과 상호 관계 속에서 사실의 세계와 학문 분야들을 이해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대학은 '보편 지식'을 가르쳐야 하며 교사는 개별 학문 분야를 세계관과 인생관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로 가르쳐야 한다. 현대 교육은 이러한 것에 취약하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의 주된 관심은 바로 노아 언약(자연 계시)을 통해 하나님이 유지하고 통치하시는 창조에 계시된 진리를 해석, 설명하는 것이다. 각각의 분야는 창조 질서의 어느 한 가지 면을 연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모든 학문적 연구에 총괄 적용된다.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유지하신다는 사실은 자연과학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신다는 사실은 사회과학의 기초이고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한 인간론은 인문학의 시작이 된다. 그러나 성경은 질서를 따라 연구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는 지식을 담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교회는 우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모든 학문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는 개념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교회와 사역자들은 신학 이외의 학문 분야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가르치도록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차적 책임을 가지되(잠1:8-9), 다만 신학에 있어서는 이차적 책임을 가진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고 말씀으로 양무리를 지키는 사명은 교회의 몫으로 나누어주셨기 때문이다(행20:27-28). 가정은 다만 이 가르침을 보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잠22:6; 엡6:4). 즉, 부모는 신학의 분야에서는 목회자와 장로의 권위 아래서 자녀를 가르치고 다른 분야에서는 국가나 다른 단체가 권위를 침해할 때 거기에 맞서서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각각의 학문 분야가 지향하는 완전히 상세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공하는 데에 역량의 부족함을 느끼므로 전인 교육에 관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기독 교사의 역할을 부모와 사역자로부터 부분적으로 나누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2) 기독교 학과와 기독교 학문

성경은 모든 학문 분야에 적용되는 것들을 말씀하지만 그 분야의 세부적인 것들은 자연 계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배우게 된다. 다양한 학문의 연구와 교육은 일반 나라에 속한 활동이므로 그리스도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인간적 활동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는 반기독교적 견해를 피하기는 해야 하지만 '기독교적' 입장을 정립하고 주장하는 일에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 노아 언약으로 말미암는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난 진리는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고 그들 모두에게 복종할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학문 분야 안에서 '기독교적'이라는 전제가 자칫 자신의 연구와 교육을 왜곡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에 죄는 개입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불신자들과 등을 돌리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조지 마스텐에 의하면 학문에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총괄적 범위나 종교적 전제는 연구와 교육에 끼치는 본질적인 영향이나 신앙적 동기를 분석하는 데에는 유익하지만 전문적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유용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성경이 언급하는 보편적인 지식과 특정 분야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넘어서서 특정 학문 분야의 전문적인 부분까지 기독교 신앙이 전제로 개입된다면 그것은 일반 계시적 정보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3) 우리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며 가르칠 학교를 어떻게 선택할지는 각 가정에 맡겨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경 전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특정 선택에서 성경의 가르침의 선을 넘어가는 것을 가르치지 말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는 부모의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신중한 선택을 위해 부모를 권면해야 한다. 선택의 강요나 양심의 조종이 아닌 한 충분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지식이나 교육적 역량, 교육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더 나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찾는 일, 재정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일 등 다양하고 폭넓은 관점과 기준에 따른 관심사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 환경을 결정하는데 개입하고 그 역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범할 소지가 있는 두 가지 잘못된 교사나 학교가 지지하는 종교적 전제들이 교과과정, 교육 환경, 교수법 같은 문제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는 시각을 옳지 않다. 포착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에도 죄의 기만성은 여전히 살아서 배우는 학생들의 기본 전제와 가치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 전제를 가지고 학생을 통솔하는 학교의 겨우 위험성이 많다. 또한 종교적인 바름이 모든 것을 담보해준다고 믿는 오류도 경계해야 한다. 불신자들이 인간 지식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우리가 노아 언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종교적 전제에만 모든 비중을 집중한 나머지 교육의 측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빈곤하게 만들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재택 교육은 부모가 외부의 도움을 배제한 채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가질 경우에 많이 도입되는데 이럴 때 자신의 역량을 과신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고 반대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경우에도 학교 교육에만 모든 것을 위임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거두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완전한 학교 교육과 재택 교육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택 교육의 경우라면 부모의 능력의 한계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 수립의 기회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독교 학교로 진학한다는 것은 부모가 교육 환경과 교과 내용의 전제의 측면에서도 재량권의 일정 부분을 위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자녀로 하여금 더욱 폭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전제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영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통제된 환경에서 불신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향후 우리 자녀들의 삶에 다소 불리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공립학교 진학은 우리가 가진 선입견처럼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다른 건전한 교육 기회로 보충하는 데에 관심을 가진다면 최선의 교육방식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교회와 가정이 말아서 담당할 영역을 학교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피해야 할 가장 큰 오류이다. 만일 그릇된 신념이 기독교 학교에서 나타날 경우에는 그것이 더더욱 은밀하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예방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